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2021. 04. 11. (나해) 제2263호

대구주보



동인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사도 4,32-35 **화답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2독서** 1요한 5,1-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31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호랑이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하여



인동본당 주임 | 김교산 알체리오 신부

신앙심이 깊은 요셉, 하느님과 세상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 요한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짐꾼으로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여행을 가면서 요셉은 하느님은 무한정 좋으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것이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렇다며, 하느님이 결코 좋은 분이신지 자비하신 분이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둘은 논쟁을 하며 여행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 야산 기슭에 불을 피워 야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워 놓은 불이 다 타자 난데없이 호랑이가 나타나 나귀를 잡아갔습니다. 요셉과 요한은 오들오들 떨면서 호랑이가 나귀를 잡아가지도 또 논쟁을 벌였습니다. 요한이, “저렇게 우리 나귀를 잡아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하느님이 뭐가 좋으신 분이냐? 뭐가 자비로운 분이냐?” 이 말에 요셉은 “이 사람아!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가지 않고 나귀를 잡아갔으니 하느님께 감사할 일이 아닌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셔서 호랑이가 나귀만 잡아가고 우리는 그냥 두고 간 거라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자, 요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내 행복과 출세에만 기준을 두고 살면 하느님이 내게 뭐가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는 우측 강도에게도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의 어리석음에 빠져 아무리 타락하고 무거운 죄를 지어도, 죽기 전에만 회개하고 하

느님께 구원을 청하면 하느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다만 사랑과 자비를 표현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를 뿐입니다.

오늘 부활 제2주일은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20세기 초에 폴란드의 자비의 성모수녀회 소속의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님의 자비의 예수님 체험을 통하여 교회의 인가를 받아 지내게 되었습니다.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님은 2000년에 성녀 품에 올랐고 교회는 그때부터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들이라도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구원을 청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죄인들에게 벌을 주시는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고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죄인도 당신의 자비를 믿고 청하여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느님은 어떤 죄인들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시라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가지 않았으니,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신가? 이 사람아! 하느님은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시라네.” 아멘. **궤산**

레베카, 라헬, 레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축복까지는 아니어도 칭찬이나 격려의 말은 지루한 일상을 꽤나 설레게 한다. 그러나 축복에 관한 이야기일진대, 갈등과 다툼, 그리고 질투까지 벌어지는 참극이 일어난다면, 이진... 글썄, 당혹스럽다가도 매우 궁금해지는 이야기다. 야곱의 어머니 레베카,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가 그렇다.

야곱의 어머니 레베카는 에사우를 향했던 이사악의 축복을 야곱을 위해 가로챈 장본인이다(창세 27,7-10 참조). 그 일로 형제간이었던 야곱과 에사우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만큼 사나운 관계가 되어 버렸다(창세 27,41 참조). 창세기는 레베카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심판도 제시하지 않는다. 독자들은 궁금해한다. ‘이진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하느님의 축복은 정당한 방법과 올바른 원의 속에 주어져야 한다’고.

레베카의 행동으로 야곱은 도주의 길을 떠난다. 그리고 야곱은 또 다른 여인들, 레아와 라헬을 만난다. 주지하다시피,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으나 라헬의 아버지 라반은 또 다른 여식, 레아를 먼저 야곱의 아내로 들였다. 라헬을 얻고자 이미 7년을 일한 야곱은 다시 7년의 시간을 라반에게 고스란히 바친다(창세 29,15-30 참조). 하느님의 축복을 이어받은 야곱은 이제 레아와 라헬 사이에 벌어지는 질투와 갈등의 당사자가 된다.

레아는 자식을 낳았지만 야곱의 사랑에 목말라했고, 야곱이 사랑한 라헬은 자식이 없어 레아를 질투했다(창세 29,31;30,1 참조). 다반사로 일어나는 여인들의 사랑과 질투 이야기라 특별할 건 없다. 다만, 다시 질문해 보자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야

곱 이야기에 왜 질투와 갈등이 이토록 많은가? 이진 축복인가, 저주인가?

룻기에서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을 세운 여인으로 칭송받는다(룻 4,11 참조). 한 민족을 세울 만큼 대단한 영웅적 덕목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라헬과 레아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여느 민족처럼 자신들의 조상을 영웅화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드높이고자 한 게 아니라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굳이 집안싸움이나 갈등을 조상들의 이야기에 첨가하는 것 역시 득 될 일은 없어 보인다. 거룩한 성조들의 이야기에 집요하리만큼 계속되는 여인들의 갈등은 하느님의 축복이 전해지는 인간 역사의 민낯이자 그 민낯이 곧 하느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방식이었던 셈이다.

현대의 종교는 절대적 진리와 그 진리의 교조주의적 정형화에서 개인의 힐링과 수련으로 대체된 현상을 보인다고 하버드대 신학자 하비록스는 진단한다. 레베카, 라헬, 레아는 도덕적이지도, 절제미와 교양을 갖추지도 않은 평범한 여인들일 뿐이다. 더욱이 그녀들은 다투고 갈라지고 원망하고 슬퍼한다. 그런 평범하고 고단한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축복은 주어졌고 이어진다. 그녀들을 통해 현대 종교의 현상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잘나야 신앙인가?’, ‘능력이 있고 명망이 있어야 영성적인가?’, 아니면 이런 희망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나 같은 모자란 사람에게는 하느님은 축복하시고 함께하시는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축복이란 게 가능한 건가?’ **필문**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 김천 성경학교 -



5대리구 김천 성경학교 | 김유정 얼마 수녀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 여정에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며 즐겨 읽어야 할 책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최선을 다해 자주 성경을 읽고 모든 것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도 성경 공부를 위한 여러 모임들이 생겨났고 김천 지역 신자들의 말씀 배움터인 김천 성경학교는 성경 공부와 묵상을 통해 말씀에 깊이 맛 들이고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기쁘고 활기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튼튼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에서 파견나와 말씀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지역의 각 본당에서는 1980년대부터 성경 공부반이 개설되어 말씀의 터전이 가꾸어졌는데 2003년에 김천지역 공동사목의 일환으로 평화성당에 김천 성경학교가 설립되어 교우들은 구약 2년, 신약 2년의 과정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제14회 졸업식을 하여 500여 명의 교우들이 신·구약 4년 과정을 졸업하였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이지만 올해 3월에는 제18회 입학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교우들은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조별 묵상 나누기를 통해서 친교를 나누고 성지순례, 피정, 축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씀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에 함께합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도 이러한 여정에 초대하는 성경학교에 문을 두드리시어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궂궂**



김이우(金履禹) 바르나바는 한양 명례방의 유명한 역관 집안에서 서자(庶子)로 태어났다. 1786년경 유배지에서 사망한 김범우 토마스는 그의 맏형이자 이복형이고, 1801년 서소문 밖에서 순교한 김현우 마태오는 그의 아우이다.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지 얼마 안되어 이복형 토마스로부터 교리를 배워 입교한 바르나바는 아우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당시 그들 형제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이승훈 베드로였다. 이어 1785년에 일어난 ‘명례방 사건’으로 맏형 토마스가 유배를 가게 되자, 그들 형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았으며, 비밀리에 기도 생활을 계속해 나갔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뒤, 바르나바는 아우 마태오와 함께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홍필주 필립보의 집으로 가서 주 신부를 만났으며, 정인혁 타대오, 최필제 베드로 등 몇몇 교우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자주 기도 모임을 갖거나 교리를 강습하였다.

이후 바르나바는 주 신부가 박해의 위험 때문에 피신하게 되자, 자신의 집을 피신처로 제공하고 그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주 신부가 설립한 평신도 단체 ‘명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또 1800년에 주 신부가 다시 한번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미사를 집전하게 되었을 때는 미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



김이우 바르나바
(? ~ 1801년)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바르나바는 아우 마태오와 함께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곳에서 바르나바는 엄한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 배교를 강요당했는데, 특히 박해자들은 그에게 그동안의 행적을 무섭게 추궁하였다. 그의 집이 신자들의 집회 장소였고, 그가 주문모 신부를 숨겨준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나바는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의 형벌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다. 그러다가 결국 형벌을 끝까지 견디어 내지 못하고 포도청에서 장사(杖死)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01년 음력 5월경이었다.

교황청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 2021. 8. 15(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을 기부하면
교황청을 통해 가난한 나라에 전해져
전 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504-10-413509-7 예금주_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 의 :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053)423-3008



3. 말씀에 비추어 보기 2

서로 사랑하며 생명을 낳는 부부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참되고 살아있는 조각품입니다. ... 하느님의 신비는 하느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사랑의 성령을 바라보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관점에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친교를 이루시며, 이는 가정을 통하여 현실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를 설명하십니다. “가장 심오한 신비 안에서 우리 하느님께서는 홀로 계시지 않으시며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아버지다움과 아들다움과, 가정의 본질인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가정 안에서 바로 그 사랑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느님의 본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기쁨』 11항)



미사 안내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12일(월) 10:30 범어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4월 13일(화) 11:30 계산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4월 12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4월 14일(수) 10:00 평화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4월 12일(월) 11:00 황성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4월 15일(목) 10:00 평화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12일(월) 11:00 신평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4월 17일(토) 11:00 월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4월 12일(월) 11:00 죽도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4월 17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4.17(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단체: 10명 이내 / 연중가능

성독 7인 피정: 4.20(화)~22(목)

문의: (054)382-0091

바오로딸 영성프로그램

영화 피정: 4.21 셋째 수 14:00 월 1회

독서 피정: 4.22 매주 목 19:00 4주

성체조배: 매주 화 11:00

상설고해소: 매주 화 14:00

문의: (010)6681-5185

해독, 효소단식 성경통독 피정

몸을 해독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힐링시간

일시: 4.22(목)~25(일) 3박 4일

장소: 성모솔숲마을

문의: (054)373-3955 / (010)6630-3816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엠마오 피정

일시: 4.24(토) 10:00~25(일) 15:00

장소: 한티순례길 2구역~3구역

대상: 예수님과 함께 걷고 싶은 미혼 여성

주최: 바틀로교육센터

마감: 4.20(화) / 문의: (010)9861-6691

대구 예수마음기도 피정(5주 과정)

일시: 5.10~6.7 매주 월 10:00~16:30

5.8~6.5 매주 토 10:00~16:30

장소: 지산성당(선착순 10명)

대상: 하느님과 깊게 만나고 싶은 분

신청: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010)9620-5603

교육 | 모집 | 기타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

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대구대교구 SNS 안내 (Social Network Service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망막질환
대표원장 (현 연세대 외과교수) **박 중 원** (소시모)
안과전문의 **서 재 신** (베드로) · **장 주 현** (비바안과)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 경 일 (아 네 스)

늘 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작 앞 ☎ 053-959-7175
010-9597-7175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저운창고·고추건조기
합부가능(12개월, 24개월)
김원(토마스) 010-5623-9001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서만수 예쁜누네성형외과
DR. SUM'S PRETTY EYE PLASTIC SURGERY CENTER
원장 서만수(후배)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노성형 | 코성형 | 필러, 보톡스 반월산드힐타워 8층
진료문의 216-7345

† 이수승 신부님 선종 1주기 미사
일시: 4월 12일(월) 11:00
장소: 가톨릭 군위묘원

행사 | 모임

예비신학교 고3~대학일반 모임

고3~대학·일반: 4.18(일) 14:00

장소: 남산동 대신학교

교육 | 모집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학교 심화과정

일시: 4.27(화)~29(목) 13:3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대상: 예비신자 교리반 및 소공동체 봉사자
마감: 4.21(수) / 2만원, 선착순 50명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5월 카나혼인강좌

일시: 5.9(일) 10:00~13:30(시간엄수)

장소: 교구청 내 다동 대강당

참가비: 2인 3만원(사전 신청) 무료주차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4.29(목)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제32기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개강: 4.12(월) 19:00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2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성지안내 봉사를 위한 천주교회사

일시: 9.3~12.3 매주 금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강사: 이찬우(다두) 신부

회비: 6만원(교재비 별도)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4300-8767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사군자문인화,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캘리그래피, 서양화, 일반꽃꽂이, 플루트, 발성법, 가곡성가, 섬유공예, 태극권,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문의: 593-1273

휴먼 모래놀이 상담사 3급 과정 모집

일시: 4.17(토) 9:00~16:00

4.18(일) 10:00~16:00

장소: 남대영기념관 4층 예성상담센터

문의: 629-1117 / (010)6416-8114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마감: 4.16(금)

과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성모애덕의집 입소어르신 모집(양로원)

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로 487

내용: 1인 1실, 미사, 수녀원 운영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문의: (054)972-6219 / (010)8388-6219

채용 | 안내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채용

인원: 2명

상세: 교구 홈페이지 참조

마감: 4.15(목)

문의: 710-1391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문정선, 이승은(글라라)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8~9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 의 이수윤(소피아), 홍정흠(대전안드레이)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의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한국성지 167 완주

(주)미카엘여행사 Michael Tour
5.10(월)~5.13(목) 대전교구
5.24(월)~5.27(목) 인천, 의정부

제주성지순례 3일/4일
4.23(금)~4.25(일) 5.4(화)~5.6(목)
5.17(월)~5.20(목) 5.31(월)~6.2(수)

미카엘여행사 ☎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공정직업도매(동고령IC)

삼우싱크

이웅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대구 용산점, 칠곡 구암점

싱크, 불박이, 신발장, 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경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루해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 신축 확장 이전 —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 진 욱 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3요한 1:2)

전인병원

☎ 대표전화 1688-7667